



대행 스님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도량이 좁은데다 더워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생하면서도 이렇게 너가 있고 내가 있듯이, 헤어졌다가도 서로 한마당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한마음이요 한 도량이고 한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입산한 사람이든 유발 제자든 다, 생활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전체 과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곧 한마음 속의 보배이므로 그 보배 속에서 일체 만법이, 즉 말하자면 천문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방출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께서서는 “팔자 운명도 없느니라. 너희들에게도 부처가 있느니라. 부처 있는데 중생이 있고 중생 있는데 부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통이 속에 그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거죽만 여러분인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속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은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고요? 여러분의 몸통이 전자의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무쳐진 것입니다. 지구라는 껍데기와 같이 여러분 몸통이도 흑성의 껍데기입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통이 속에서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묘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내가 말을 했죠.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충만하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 말로 한다면 큰 컴퓨터죠. 과거에 살던 모든 것, 인과의 인연이 된 그 모두가 거기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에서 전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컴퓨터를 큰 속명통이라고 본다면 타

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한 부분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항아리라면, 아니 팔 수레, 수레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종합된 시스템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팔자나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모든 업보성으로 인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빈

집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죄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입력을 해 넣는다면 앞서 입력된 과거가 무너진다는 소립니다.

덧붙여 또 한마디 뽕겨 줘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과거 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 씨는 현재의 몸통이 됐고 몸통이 속에는 바로 그 과거의 씨와 돌이 아닌 수박씨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먹이고 또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끝간데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을 기르기 위해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이 되남았느니라.” 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또 다시 심어져서 또 수박을 열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또 되남아서 또 먹고 또 되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진리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온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팔자 운명이 있고 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불을 지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현재의 여러분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지금 닦지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찾게 가져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에 다시 입력이 들어간다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세트테이프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노래를 녹음시킨다면 앞서 넣은 노래는 없어지듯이 그건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놓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를 하죠.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있으며 불을 지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팔자나 운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 번 죽어서 사람이 돼야만 이런 인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서로 자기 마음을 개발하면서 자기 마음이 오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누진을 통해서 모두... 누진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따진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를 다 책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교를 왜 불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거기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이나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나 또는 뭐, 나는 아까 얘기를 하고도 잊어버렸습니 다마는 그런 대학에서 선생님들 32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북하면 이 도리에 관한 논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나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가 터져서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태어난 거지 마음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의 영력, 정신력을 길러 재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그 묘한 법이 있다는 걸 여러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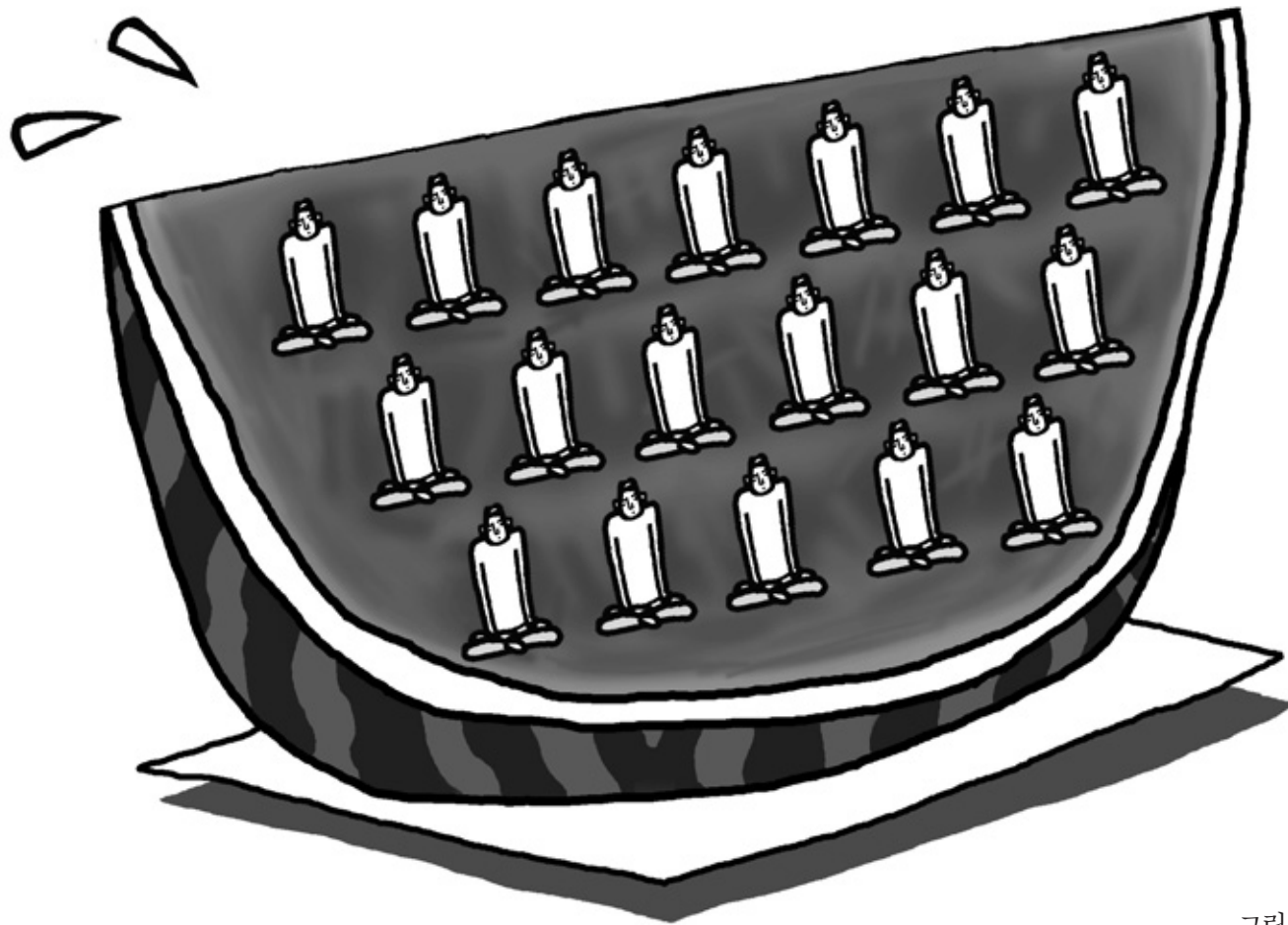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하고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요

29면에서 계속

분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길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모두가 공생·공영·공체·공화 할 수 있는 삶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대로, 지금 현실의 내가 아는 대로 죽어도 그 의식이 그냥 남아서, 요다음 생애 다시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도 그 차원을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농촌에서는 논조를 보러 가는 일이 많죠. 어느 농부가 논조를 보러 가다 보니 큰 뱀 하나가 쪽 늘어져 있어서 그것을 삼으려다가 자끈자끈 찢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대가리가 잘라지니까 머리가 그냥 펄떡 뛰어서 삼으로 찢고 있는 사람의 가슴을 타치고 떨어지더니 그냥 꿈틀꿈틀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 농부는 정신 이상이 돼서 20년쯤 살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되겠어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뱀 속에 들어 있던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사람의 의식 자체를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으니 그 뱀은 뱀대로 사람의 의식이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뱀으로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뱀이 그 사람 전체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약에게 뱀기는 것도 있지만 선에게 뱀기는 것도 있죠. 하지만 보세!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입니다.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이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뱀에게 잡아먹히느냐, 뱀을 내가 잡아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죽었고 뱀은 그 죽는 순간에 약이, 독이 들어 있었던 말입니다. 독이 들어 있는 이상 그 사람을 그냥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뱀이 그냥 독을 주어서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사람을 빼 먹었습니다. 빼 먹었으니 그 뱀을 자끈자끈 찢어서 죽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돼서 뱀 소굴로 이끌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 스님의 말씀이 “내일 모레면 뱀의 소굴로 들어가게 생겼네.”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뱀의 소굴로 들어가서 뱀이 돼 가지고서 새끼를 낳았던 말입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았거든요. 사람 속이든 뱀 속이든 전부 오물오물하게 들어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이 수효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동우리였다.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아 낳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뱀이 돼 가지고 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 낳으니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만큼 해야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뱀 모습이 돼 가지고 살아야 나가 보면 뱀이 사는 의식을 가지고서 수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의식, 습이, 뱀이 하는 놀음이 아주 박혀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강과 소굴로 들어갔는데 나쁜 일을 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제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살아야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 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빠져나와도 벌써 거기에서 지고 있습니다. “너, 와! 할 일 있어.” 안 하면 죽어는 겁니다.

이렇듯이 뱀의 소굴로 들어가거나 개구리 소굴

벽을 치면 봉장이 올리듯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근본을 잡지 않고 지금 바깥으로만, 기복으로만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 노릇 미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 미신이 있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하는데 왜 미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되고 인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거기가 다 맡겨 놓고 ‘한 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녹여 줄 수 있고, 또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빛을 갚게 해 줄 수 있다. 앞으로 2세들한테 햇빛을 줄 수 있는,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주인공밖엔 없다. 찬나가 있다는 증명도, 공한 것이 공했다는 증명도 바로 주인공만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 생각에 모두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생각에 그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가 따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까닭은 무엇이나? 이 선(禪)이라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떠다 대도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자체가 개별적인 마음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서로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앉았을 때에는 서로 도반입니다. 내가 잘나고 네가 못나고 그런 것도 없구요.

내일이 칠성이고 또 며칠 있으면 백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고 액난이 것들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용도대로 있어도 여기에서는 그걸 재료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든지 그것을 재료로 알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시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면해 주려고 밝이나 놓고 딱이나 놓고 목탁이나 치는 사람이 아

내려놓고서 행을 했는데 그걸 이보경계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군수 물자를 이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했다 이 소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나니까, 칼, 창, 활 이런 걸로 쓰고 그렇게 하면 때니까 몸을 피해도 되고 몸이 안 보여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알게 된다고 할까요? 레이더망에 전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물건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세력이 센 데를 못 쓰게 만드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이 돼 줄 수 있거나, 또 상대 쪽은 상대 쪽대로 편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려면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여야 이게 평등하게 된다고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면 그림을 그려도 잘못 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생각이니까요. 대를 위해서 한생각으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공부야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프면 주인공 속에서 의사가 되는 거고, 또 가난하면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고, 또 좋은 데로 못 갔으면 지장이 되는 거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되는 거고, 또 일이 생기면 산신이 되는 거고 독성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될 것 같은 의려(疑慮)가 생긴다면 바로 자신이 돼 주고 물에 가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용신이 돼 준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부처님 한생각으로 동방에 이쪽을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놔다 이 소립니다. 한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건 이름일 뿐이지 다 한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날 속아오 여기 와서 이름이 다른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알고, 저기 가면 저기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마음의 도리가 성성하게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속고 가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닦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에 들어가거나 돼지, 소, 말, 어느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도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들이 많은 것은 자기 인과에 의해서 그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숫자대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대로 낳은 낱알 새끼 속에 인과가 숫자대로 또 있으니 어떡합니까, 글세. 그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한 번 잘못 해서 범한 이 살생의 업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공부를 해서, 즉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하는 수행을 해서, 뱀을 죽인 거든지 개구리 죽인 거든지, 사람 사는 거든지, 과거에 나쁘게 했는지 좋게 했는지 전부 거기가 다 맡겨 놓고 걸어가라.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의 업보가 다 녹아서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저 뱀 새끼 낳은 것이 다 죽고 물로 그냥 돼 버리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안에서 파위를 일으켜요. 정에서도 파위를 일으키고 간장에서도 파위를 일으키고, 위장 공팔 방광 이자 심장, 이런 데서 파위를 다 일으켜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자기인데 각각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속의 세포 생명들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고 알기 때문에 누가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퐁 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잡자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또 먹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죠. 그것을 그렇게 비유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뭘니까?”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간 까닭은 또 무엇이나?’ 고 묻고 싶습니다.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며, 서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해서 체험을 하시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한테만 미룬다면 안 되겠어서, 보이지 않는 데 50%의 충전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충전을 해 드려야 전기가 들어와서 연구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역대의 조사, 선지식들께서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경서를 아무리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잘 맞춰서 설명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50% 충전이 없다면 자기를 깨닫기는 극히 어려우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택이 이어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력을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볼 수 있는데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못 보시죠? 한 찰나니까요. 그게 보이거나 할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또 우리가 광력을 쓰는 데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p>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p>		<p>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p>	
<p>6번 20,500 7번 39,000</p>		<p>8번 30,000 9번 32,000</p>	
<p>10번 20,500 11번 20,500</p>		<p>12번 61,000 13번 20,500</p>	
<p>14번 48,000</p>		<p>15번 62,000</p>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타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0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 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상** / 02)2004-8216

농협 053-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